

기출을 한번 차분히
뜯어봅시다.



25년도 6월 에이어

제 1 교시

(가)(나) 에이어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블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에이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에 새로운 사고를 ㉤열어 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나)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 준다.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을 전건 긍정식이라 한다. 전건 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

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꿀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꿀은 맛있다면 꿀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꿀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에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령 ‘꿀은 맛있다.’는, ‘꿀은 맛있다면 꿀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꿀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12. (가)에 나타난 에이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 ②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 ③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 ④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⑤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한다.

13. .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꿀은 맛있다면 꿀은 비싸다.’에 포함된 ‘꿀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 ②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 ③ ‘꿀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 ④ 화자는 꿀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꿀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 ⑤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14.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의 진술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견해를 작성해 봅시다.

<p>[진술 1]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윤리학자: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① •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②
<p>[진술 2]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③ • 행크스: 옳다. 도덕 문장은 도덕 용어가 나타내는 속성에 비추어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p>[진술 3]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어: 옳다. 도덕 문장은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④ • 행크스: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될 때와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⑤

15.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은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 ② ㉠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 ③ ㉠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 기초한다.
- ④ ㉠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 ⑤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16.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 ①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②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③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④ ‘꿀은 맛있다.’가 꿀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⑤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수색하는
- ② ㉡ : 제시하지
- ③ ㉢ : 전파했다
- ④ ㉣ : 발산하는
- ⑤ ㉤ : 공개하여

2025년도 6월 (가)(나) 에이어

해설을 작성하며...

이 당시 시험을 보고나서 철학 지문들 중 역대급이라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당시 연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기에 2211 해질을 볼 때의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EBS를 보았다면 소재연계가 되어 쉬울 것이다...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분명 익숙해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어요.

아래는 실제 EBS의 연계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에 대한 에이어의 견해를 다룬 내용과, 논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덕 문장의 타당성을 다룬 인문 주제 통합 지문도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교재에서 주요 정보를 밀도 있게 연계하였다. 이 지문의 경우 EBS 수능 연계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에이어의 견해'를 (가) 지문의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연계 체감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나) 지문은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논리학 제재가 지문으로 제시되어 독해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실제 25년도 수능특강 p. 283 지문의 일부입니다.

에이어는 무어가 열린 질문 논증을 통해 자연주의적 오류를 주장한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가 자연주의 윤리학자와 마찬가지로 윤리적 판단의 참 또는 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에이어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직관적으로 참이라고 보이는 윤리적 판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거짓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 판단에 대해 상충하는 두 직관이 존재할 경우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직관에 의한 판단이 주관적 확실성만을 줄 수 있을 뿐이며, 윤리적 판단의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정당화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에이어는 어떤 것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실제로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윤리적 판단은 단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며 그 무엇도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서의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윤리적 판단에 대해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에이어의 주장은 윤리적 판단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정들을 모두 부인하는 급진적인 것이다. 좋음이 지시하는 속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좋은은 B이다.'의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윤리학자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던 가정이다. 에이어는 이와 같은 가정에 도전하며 윤리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연계에 집착을 하며 외워버린 사람들은 이 지문을 기억해내며 분명 (가)의 에이어의 주장을 빠르게 털어내고 읽어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나)에서부터 어떻게 읽었을까요? 아마 (나)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13, 15, 16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했을 겁니다. 에이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에이어가 맞다면 전건 긍정식이 틀려야 한다'라는 가정을 했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그저 내가 알고 있다는 점에 매몰되어 정보의 처리와 글의 이해를 소홀히 한다면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연계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해 봅시다.

[12~17] 독서 에이어

(가)

1문단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사실적 독해 : 전통적인 윤리학은 도덕적 용어, 즉 '선'이나 '올바름'의 해명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근거를 찾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추론적 독해 :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윤리학이 단순히 개별적 가치 판단이나 주관적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탐구하는 학문임을 알 수 있다.

태도 : 선 예시를 통해 도덕 용어에 대한 추론을 유도했다. 확장적으로 사고하지 말고 준대로 가자.

B하는 A를 통해 어떤 객관적 근거를 찾는지에 대해 제시했다.

구조화 : 전통 윤리학의 목적 : 도덕적 해명 → 객관적 근거 찾기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추론적 독해 : 앞 문장에서 설명된 윤리학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윤리학의 한계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음을 파악하자.

태도 : 역접의 접속사 '그러나'를 통해 전통 윤리학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뒤에 제시될 해결책을 기대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실적 독해 :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참과 거짓으로 판정될 수 있는 성질(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는 도덕적 옳고 그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드러낸 것이다.

추론적 독해 : '진리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에이어의 주장이 전통적 윤리학의 목표(객관적 근거를 통한 참-거짓 판정)를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도 : '이러한'을 통해 앞서 제시된 전통 윤리학과 연결지어서 읽어야 했다. 도덕 문장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장임을 B하는 A로 파악하자. 진리 적합성은 뒤에 나오는 '즉'을 통해 참 또는 거짓이라는 성질을 뜻한다는걸 잡고가자. 또한 부정어도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제시된 전통 윤리학과 에이어를 비교/대조하며 범주화해두고 읽어나가자.

물론 1809 고전/LP를 기억한다면 참 또는 거짓을 진리치라고 부른다는 점에 대해 알 수 있었겠지만 그닥 필요도 없고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배경지식 삼아 알고는 가자.

거시 FRAME.

1. 윤리학의 목표: 옳고 그름의 객관적 근거 탐구
2. 한계: 만족스러운 답 부재 (문제)
3. 에이어의 입장: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음 (해결)

미시 FRAME.

정의(B하는 A), 그러나(역접), 이러한(앞 뒤 문장 연결), 즉(개념과 정의 이음)

2문단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적 독해 : 에이어는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가지려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1. 분석적 문장: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
2. 종합적 문장: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

이에 따라, 도덕 문장은 이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론적 독해 : 에이어는 결국 진리 적합성을 가지려면 분석적 문장 혹은 종합적 문장이어야 하지만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기도 종합적이기도 않기에 진리 적합성을 가질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분석적 문장이 무엇인지 종합적 문장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었으면 하는데 뒤에서 준다면 준대로 가고 주지 않는다면 현재 정의된 부분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

태도 : '모든'을 통해 범주를 기억하고 병렬적으로 제시된 B하는 A(개념쌍기)를 통해 분석과 종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잡고가야한다. 부정어도 잊지말 것. 그리고 언제나 주장이 제시된다면 근거를 대야한다. 주장이 나왔으니 이 뒤에 나오는 근거를 기대하자.

문득 떠올랐어야할 기출이 있다.

바로 2209 자유의지 지문이다.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이는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1. 문제 제기 : 갑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2. 가정 : 모든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
 - 선결정
 - 무작위
 3. 반자유의지 논증
 - 선결정 : 선택이 선결정되었으므로 자유의지 없음
 - 무작위 : 선택이 무작위적이므로 자유의지 없음
 4. 결론
- 두 가정 모두 자유의지를 인정할 수 없음 →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음

해당 지문과 이 지문의 논증의 구조는 거의 흡사하다. 기존의 기출을 풀고 분석했다면 기시감을 느꼈어야한다.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사실적 독해 :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통 윤리학의 논의를 받아들였다.

추론적 독해 : 전통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에이어는 도덕문장은 문장의 성분을 통해 검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태도 : '우선'을 통해 다음에 무언가가 더 제시될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분석적 문장에 대한 붙여읽기를 하며 에이어와 전통 윤리학의 공통점을 처리하자. 정보의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전제를 깔고 가고 있구나 하는 이해를 해야한다.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추론적 독해 : 분석적 문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술어가 주어의 정의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도덕 문장에서 ‘선’이라는 주어와 ‘A’라는 술어가 개념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의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문장으로 간주된다.

태도 : ‘면’을 통해 조건부 서술임을 기억하자.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사실적 독해 : ‘선’은 더 이상 분해하거나 정의를 구체화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다. 따라서 ‘선은 A이다’와 같은 도덕 문장은 술어 ‘A’가 주어 ‘선’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분석적 문장이 아니다.

추론적 독해 : 받아들이자.

태도 : ‘하지만’을 통해 A가 선에 내포되어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것에 대한 이해를 보조받으며 가자.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론적 독해 :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검증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의 대상인 물리적 실체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수 없다면 비물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도덕문장은 분석적이지도 경험적이지도 않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다 확인했다.

태도 : ‘때문이다’에서 이유를 잡자.

거시 FRAME.

전통 윤리학 ↔ 에이어
비교/대조
공통점 : 도덕문장 = 분석적 X

에이어

- 1. 논점 :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지는가?
- 2. 진리 적합성 조건(개념 쌓기)
 - 분석적 문장 : 정의를 통해 참·거짓 검증 가능
 - 종합적 문장 : 경험을 통해 참·거짓 검증 가능
- 3. 도덕 문장의 한계
 - 분석적 문장 아님 → 술어가 주어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
 - 종합적 문장 아님 → 감각으로 검증 불가능

3. 결론 :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참 또는 거짓이라는 성질)을 가질 수 없음

미시 FRAME.

모든(범주), 우선(순서), 면(조건), 하지만(역접), 때문이다(이유)

기술 REF.

2209 자유의지

3문단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했다.

사실적 독해 :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다양한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며, 동시에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추론적 독해 : 에이어는 도덕 문장을 객관적 진리나 검증 가능한 명제가 아닌, 주관적이고 감정적 표현의 영역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정서적 의미는 어떤 것이기에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

태도 : 정서적 의미를 B하는 A로 정의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사실적 독해 : 도덕 용어가 단일한 의미로 쓰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추론적 독해 : 두 가지 용법이라는 표현은 도덕 용어가 정서적 의미와 다른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다른 의미는 무엇이고 이 오해는 왜 발생할까?

태도 : '두 가지'를 통해 뒷 문장을 예측할 수 있다. (두가지니 두 개 언급하겠지 세 개 언급할 리가....)

또한, '오해'라는 단어를 주목해, 도덕 문장이 진리판단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의문이 생겼으면 꼭 뒤에서 해결하자.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사실적 독해 : 에이어는 도덕 용어가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표현적 용법 :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용법

2. 기술적 용법 :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기 위한 용법

추론적 독해 : 결국 이 두 개를 혼동해서 도덕 용어가 진리 적합성을 가진다는 오해를 했나보다.

태도 : B하는 A의 정의가 병렬적으로 제시되었다(개념 쌓기). 순서대로 서술하겠지? 역으로 제시된다면 다음 문단으로의 연결을 중요시하자. 만약 그렇지 않고 역순으로 제시된다면 1711반추위의 첫문단을 떠올려보자. 첫문단에서 섬유소, 비섬유소의 순서로 제시한 후 비섬유소를 먼저 서술하고 그 다음에 섬유소를 서술하여 섬유소를 다음 문단의 키워드로 사용했었다. 결국 중요하면 뒤로 뺀다.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추론적 독해 : 아 역순이네? 기술적 용법은 도덕문장이 아닌가 보다.

태도 : '만약'을 통해 예시를 줬다. 예시를 통해 이해하자. 분류의 방식을 역순으로 제시했으니 표현적 용법이 매우 중요한것인가보다 하는 생각을 해야한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추론적 독해 : 맞다. 도덕 문장이 아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이는 종합적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태도 : '따라서'를 통해 결론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사실적 독해 : 감정을 표현한다면 표현적 용법인데 이는 도덕 문장이다.

추론적 독해 : 의문이 해결된 것 같다.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가진다고 오해하는 이유가 나왔다.

사람들이 도덕 문장의 표현적 용법을 기술적 용법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태도 : ‘반대로’를 통해 이제 표현적 용법의 서술이 나오겠거니 예상해보자. 부정어 처리도 꼭 하고.

에이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내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실적 독해 :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화났나?

추론적 독해 : 화났다는건 감정이지. 감정이라면 표현적 용법

태도 : 예시를 통한 반복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사실적 독해 : 도덕 문장은 사람과 항상 붙어있다.

추론적 독해 : 에이어에 따르면 도덕 문장은 화자의 감정과 태도를 넘어서는 객관적 사실 진술이 될 수 없다. 결국 사람에 붙어있다.

태도 : B하는 A, 부정어 처리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에 새로운 사고를 ◎열어 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사실적 독해 : 전통 윤리학과 대비된다.

추론적 독해 : 기본 가정을 부정했다는 것은 결국 이들의 차이를 만드는 기준인 것 같다.

태도 : ‘만’ 뒤에 나온 의의를 확인하며 마무리

거시 FRAME.

에이어

1. 도덕 문장의 정서적 의미

주장 :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지닌다.

근거 : 사람들은 도덕 문장이 객관적 진리(검증 가능한 사실)를 담고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2.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개념 쓰기)

① 표현적 용법 : 감정을 표현 → 진리판단 불가능

② 기술적 용법 : 사실을 기술 → 진리판단 가능

3.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

표현적 용법(감정 표현)과 기술적 용법(사실 기술)을 구분하지 못해, 도덕 문장에 객관적 진리성이 있다고 오해

4. 결과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와 독립 불가능

미시 FRAME.

B하는 A(정의), 병렬 → 역순 제시, 만약(예시), 따라서(결과), 반대로(전환), 이는(연결)

기술 REF.

1711 반추위

(나)

1문단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사실적 독해 : 논리학에서 의문을 제시했나보다.

추론적 독해 : 윤리학이라면 (가)에서 제시된 전통 윤리학과 에이어가 해당되겠다.

태도 : (나)는 (가)에 대한 비판을 논의하는 글이 될 수 있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 준다.

추론적 독해 : 주장이 나오나보다.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을 전건 긍정식이라 한다.

사실적 독해 : ‘만약 P가 참이면 Q도 참이다.’라는 조건문과 P가 참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Q)을 도출하는 논리적 형식이다.

추론적 독해 : 전건 긍정식에 대한 정의를 해주었다.

전건 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추론적 독해 : 선행 조건 P가 성립한다면 후행 조건 Q도 성립한다는 관계를 드러냈다.

태도 : 철학 지문에서 명제 파트를 건드린다면 이해하려고 과도한 시간을 쓰기보다는 먼저 납득하고 기억한 후 다음 문장을 읽어나가며 예시를 통한 이해를 기대해야한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실적 독해 :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문(‘P이면 Q이다.’)의 일부로 포함된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지 못한다.

추론적 독해 : 에이어에 의하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여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 문장은 도덕 문장이었다. 이 도덕 문장이 단독으로 쓰인다면 문제없지만 앞서 제시된 전건 긍정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나보다.

태도 : 역접의 표현 ‘그런데’를 통해 전환을 눈치채자. ‘만’을 통해 한계가 있음을 눈치챘으면 좋을 것 같다.

‘꿀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사실적 독해 : 꿀 맛있다 해해 이것은 화자의 선호이다. 그리고 선호는 감정에 포함된다.

추론적 독해 : 앞서 제시된 대로 이 문장이 조건문에 들어가면 선호를 표현하지 못할 것 같다.

태도 : 일반적 서술이 제시된 후 구체적 예시가 나왔다. 연결지어 이해하되 철학 지문의 일반적 서술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해를 해야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곶은 맛있다면 곶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곶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사실적 독해 : 앞선 문장이 조건문의 일부가 된다면 선호를 표현하지 않나보다.

추론적 독해 : 결국 앞서 읽으며 예상한 것이 제시되었다.

태도 : 역접의 접속사 ‘하지만’을 통해 앞서 제시된 문장은 감정을 표현했지만 이 뒤에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며 읽어냈어야 한다.

이에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사실적 독해 : 전건 긍정식에 도덕 문장이 포함될 경우 단독으로 서술된 P와 전건 긍정식 내부의 P는 다른 내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P이면 Q이다.’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 결과 논리학자들이 비판을 제기했다.

추론적 독해 : 결국 P와 조건문 내부의 P는 다른 내용을 가진다. 그렇다면 논리학자들은 에이어에게 비판을 하겠고 그렇다면 주장과 근거가 제시되겠다.

태도 :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라는 것은 결국 도덕 문장이었다. 붙여읽자. ㉠을 보니 문제화될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사실적 독해 : P : ‘표절은 나쁘다.’ Q :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1) $P \rightarrow Q$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2) P(표절은 나쁘다.)

(3) $\therefore Q$ (결론 :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추론적 독해 : ‘직관적으로’ 타당해보인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타당해보이나 실체는 아니라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추론적 독해 : 감정을 표했했다는 것은 P가 도덕 문장이라는 의미이다. 조건문 안의 P와 단독 P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태도 : ‘하지만’을 통해 앞서 가진 의문을 해결했다.

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사실적 독해 : 결국 에이어가 옳기 위해서는 ㉠논리학자들이 옳지 않고 에이어가 옳거나 ㉡논리학자들이 옳고 에이어가 옳지 않아야한다.

추론적 독해 : ㉠논리학자들이 자신들이 맞고 에이어는 틀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설마 자신들이 틀린 경우를 가지고 비판을 하겠는가..

태도 : ‘면’을 통해 조건을 제시했다. 이 뒤에서 이 대립에 대한 재반박이 제시 될 수도 있고 제 3의 의견이 제시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 옳지 모르기에 과도한 예측은 금물이다. 준대로 가자.

거시 FRAME.

1. 비판

- 주장 :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에이머)의 견해를 비판
- 근거 : (가)에서 제시된 에이머의 도덕 문장에 대한 입장은 전건 긍정식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2. 전건 긍정식

- 정의 :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라는 형식을 지닌 논증
- 타당성 : 일반적으로 $P \rightarrow Q$ 와 P가 모두 참이면, 결론 Q도 반드시 참이 된다고 봄

3. 단독 문장 vs 조건문 내부 문장

- 단독 문장 : '굴은 맛있다.'처럼 감정·태도(선호)를 표현 가능
- 조건문 포함 :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에서는 더 이상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음

4. 결론

에이머가 옳다 \rightarrow ㉠논리학자들이 옳지 않다.

㉠논리학자들이 옳다 \rightarrow 에이머가 옳지 않다.

미시 FRAME.

그런데(역접), 만(한계), 하지만(역접)

2문단 [A]

‘이’ 쟁점에 대해 헵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사실적 독해 : 헵크스라는 사람이 이 논쟁에 참여했다.

추론적 독해 : 앞서 제시된 비판에 헵크스가 참여했다. 이제부터는 3자비교가 되지 않을까?

태도 : ‘이’를 통해 연결을 느끼자. 이전 문단과 이어진다. 이때 2406 중국어방이 떠올랐다면 좋을 것 같다.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사실적 독해 : 표절은 나쁘구나 그런데 표절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나보다.

추론적 독해 : 혹시 이거 P?

태도 : B하는 A로 속성=나쁨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사실적 독해 : 화자가 말하는 문장은 결국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문장은 판단적이다.

추론적 독해 : 잠깐 여기서 그런 문장이라함은 ‘나쁘다’가 포함된 문장이었다. 감정을 표현했으니 도덕 문장이었겠다. 그런데 ‘판단적이다’라는 말은 대체 뭘까?

태도 : ‘그리고’를 통해 서술이 끝나지 않았음을 읽어내자. 그리고 ‘때문에’를 통해 이유를 생각하고 뒷 부분에서 판단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확인하자. 에이어와 헵크스의 공통점도 잡고가자.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하여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추론적 독해 : ‘판단적이다’라는 개념에 대해 정의해준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무슨말일까...

태도 : A는 B이다를 통해 정의해준다. 놓치면 안된다.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사실적 독해 :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과 거짓일 수 있다.

추론적 독해 : 모든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진다. 이는 도덕 문장도 진리 적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인데 에이어를 전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다. 바로 차이를 만드는 기준이 파악되었다.

태도 : 선예시를 기억하자 지금 저 앞에 굳이 갖다 박아논 도덕문장에 집중해보면 에이어와 헵크스의 관계가 파악된다. 출제자는 ‘모든’이라는 범주 하나로 주고 가도 되지만 굳이 앞에 도덕 문장을 주고갔다.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사실적 독해 :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결국 판단적이기에 단독일때나 단독이 아닐 때나 내용이 같다.

추론적 독해 : 판단적이면 단독으로 진술되거나 조건문에서 진술되거나 내용이 같다고 한다. 논리학자들은 이 둘이 다르다고 했는데? 바로 차이를 만드는 기준을 파악했다.

태도 : 선 예시! 왜 굳이 ㉠이 다른 조건문을 앞에 두었을까?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사실적 독해 :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결과 속 모두 타당하다고 한다.

추론적 독해 : 앞서 말한 직관적으로는 타당해보이지만 실제로는 타당하지 않다고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모두까지 인형이다.

태도 : ‘그러므로’로 결과를 보여줬다.

2406 중국어방 (가)지문이 떠올랐다.. 앞 사람들의 상호 비판이 제시된 후 이 모든 존재들을 비판하는 존재가 튀어나온다. 이런 글을 대 할때는 공통점/차이점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왜 이런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떠올리며 이해해야한다. 기출을 지식화하지말고 태도화할 것.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사실적 독해 : 조건문과 단독 진술의 차이점을 제시해주려한다.

추론적 독해 : 뭐가 다를까?

태도 : 질문이 제시되었다, 대답을 기대해보자.

기령 ‘꿀은 맛있다.’는, ‘꿀은 맛있다면 꿀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사실적 독해 :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 X → 판단적 본질 발현 X

추론적 독해 : 아까는 판단적이라 단독이나 조건문이나 내용이 같다 했었는데 이걸 무슨말이지? 단독문이라면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 했을텐데 조건문은 다르게 부여하나보다.

태도 : 예시를 통한 이해! 그리고 부정어 X의 미학!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꿀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사실적 독해 : P는 결국 판단적 본질을 가진다.

추론적 독해 : 무슨말이지?

태도 : ‘그러나’를 통해 앞서 제시된 판단적 본질 미발현과 반대되는 서술이 제시됨을 눈치챘다. 이중부정도 잘 처리!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사실적 독해 :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건 화자가 아닌 문장 자체이다.

추론적 독해 : 아! 드디어 의문이 해결된거같다. 화자가 직접 속성을 부여하는게 아닌 문장 자체에서 부여하나보다.

앞에서 말한대로 문장에 대한 진술은 화자와 무관할 수가 없다. 따라서 화자가 진술했다면 대상에 속성을 부여한 것이 맞지만 조건문의 경우에는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문장 자체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문장 자체에 판단적 본질이 내재해있다고 볼 수 있다.

태도 : ‘다시말해’ 앞서 제시된 것을 다시 설명해준다.

거시 FRAME.

1. 행크스의 논의 전개
 - '이' 쟁점 (연결)
2. '판단적이다.' 정의
 - 판단적 =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
3. '판단적 문장'
 - 모든 판단적 문장 → 진리 적합성을 가짐
 -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 → 판단적 → 단독문과 차이가 없음
4. 질문(조건문의 P와 단독 P의 차이?)
5. 대답(화자가 속성을 부여하지 못하지만 문장 자체에서 판단적 본질을 가짐)

미시 FRAME.

이(연결), B하는 A(정의), A는 B이다.(정의), 선 예시(준 대로), 그러므로(결과), 그러나(역접), 다시말해(반복)

기출 REF.

2406 중국어방

[12~17] 독서 에이어

- 문제 해설

12. 에이어의 주장을 기억하자.

정답해설 ④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을 나누는 기준은 도덕 용어를 감정을 표현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실을 기술하느냐이다. 사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지문독해 FRAME

개념 쌓기 : B하는 A로 정의된 개념 + 병렬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의 정의가 병렬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을 잡았어야 한다. 돌아가서 확인할 것. 이 병렬적 제시를 순간 혼동하면 바로 틀린다.

선지선택 FRAME

추가

'사실의 종류'라는 지문에 없는 말을 제시했다. 이러한 선지는 거르기가 까다롭다. 지문에 없는 말을 언급했기에 지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의를 확인해야한다.

오답해설

- ① 검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장이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술적 용법은 경험적 검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도덕 문장은 결국 감정을 담은 어조로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한다. 여기서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에 대한 판단에 시간을 써서는 안된다. 애초에 도덕 용어의 용법 중 표현적 용법을 사용한 것이 도덕 문장이기 때문이다.
- ③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라면 지문의 분석적 문장에서 언급이 되었다. 이는 예시 파트에서 제시되었다. 주어인 선과 술어인 A의 관계를 통해 분석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통해 문장을 검증해야만 분석적 문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⑤ 에이어에 따르면 결국 도덕 문장에 대한 오해는 도덕 용어가 표현적,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했다. 실제로는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된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착각한 것이다.

13. [A]는 행크스의 '판단적이다'를 기억하자.

정답해설 ⑤ 분명 화자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지 못하기에 판단적 본질은 발현되지 않는다. 하지만 화자가 부여하는게 아닌 문장 자체에서 판단적 본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가령 '꿀은 맛있다.'는 '꿀은 맛있다면 꿀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꿀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지문독해 FRAME

역접

'그러나' 뒤 부분에 주목했어야 한다. 결국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출제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염려하여 '다시말해'를 통해 반복해주었다. 잘 읽고 바로 그어내야한다.

선지선택 FRAME

예시 연결

'표절은 나쁘다.'는 앞서 일반적으로 서술된 P에 연결지을 수 있었다. 결국 P는 조건문인 P→Q에서도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는다고 했으니 무조건 연결지어서 읽어야 했다.

오답해설

- ① '꿀은 맛있다'는 P에 대응되고 '꿀은 비싸다.'는 Q에 대응된다. 결국 P는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②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고 했다. 다시말해 진리 적합성을 가진다는 말이다. P가 조건문 내부에 존재해도 판단적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P는 어떤 경우에도 판단적이다.
- ③ 판단적 속성을 가지면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P는 언제나 판단적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④ 화자의 문장 진술은 내용과 무관할 수 없다고 했다. 적절하지 않다.

14. 문제의 논리를 따라가자. 큼직한 덩어리만 물어봤다.

정답해설 ④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문독해 FRAME

주장 + B하는 A로 정의된 개념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반복된 주장을 통해 빠르게 그어내자. 제대로 읽어냈다면 지문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선지선택 FRAME

준 것만 판단하자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앞에서 계속 반복한 말이다. 여기서 '옳다'에 대한 판단을 하기 보다는 이 부분에서 굿는 것이 실전에서의 판단에 부합한다. '옳다'를 판단하려면 에이어와 논리학자들간의 의견을 비교한 후 판단을 해야한다. (나)에서 (가)로의 방향성을 가진 비판을 자연스럽게 읽어냈는데 굳이 (가)에 언급도 없는 에이어가 논리학자들에 대해 내린 판단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문제 박스를 잘 보자. 에이어와 행크스를 비교하는 학습 활동을 하고 있다. 준 것만 판단하자.

오답해설

① 전통적인 윤리학자는 도덕 용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비판하는 에이어는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기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통 윤리학자들이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비판이었을 것이다. 또한 '객관적'이라는 어휘적 접근도 유효했다. 개인적 주관에 떠나서 보편성을 가진 도덕적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전통 윤리학자는 당연히 옳다고 대답할 것이다.

② 에이어는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기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번을 판단하며 같이 그어버리자.

③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진리 적합성을 가지려면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어야하지만 둘 다 아니기 때문이다.

⑤ 행크스는 조건문의 P나 단독사용된 P나 판단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내용의 차이가 없는 것이 맞다.

15. 비판유형의 틀 A(x) → B(y).

정답해설 ① 비판에서는 언제나 A의 입장에서 맞는 말인 x를 기준으로 B의 입장에서 맞는 말인 y가 틀림을 보여야한다.

먼저 방향성을 체크하자. 논리학자들이 에이어에 대해 비판한 것이 맞다.

B(에이어) y(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y)이라는 점에서 바로 그어내야한다. 에이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지 않게 된다고 논리학자들이 말했다기 때문이다. 분명 논리학자들에 의하면 에이어가 옳으면 전건 긍정식이 틀려야한다. 하지만 전건 긍정식이 틀릴 리가 없으므로 에이어가 옳지 않다.

이것을 A(x) → B(y)틀로 나타내자면 A(y+x) → B(y)인 셈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A가 할 말이 아니다.

실전에서는 가볍게 아 얘가 할 말이 아니지하고 그어버리면 된다.

이에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중략>

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지문독해 FRAME

주장

에이어가 옳다 → ㉠논리학자들이 옳지 않다.

㉠논리학자들이 옳다 → 에이어가 옳지 않다.

상대를 비판하는데 자신의 주장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선지선택 FRAME

비판/평가 유형의 틀 A(x) → B(y)

논리학자들이 에이어를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A에 해당하는 것이 논리학자들이고 B에 해당하는 것이 에이어다. 그리고 x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문 내부의 P와 단독문의 P는 내용이 다르다'이다. y에 해당하는 것은 '도덕문장은 감정을 표현한다.'이다. 이때 x와 y의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A의 입장에서 B를 비판하는 것이니 'B야 너가 y라고 말했다? 사실 x이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라고 읽어내고 시작하자.

오답해설

- ② 만약 x가 옳다면 y는 옳지않다.
- ③ x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④ x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지문에서 확장 적용함을 파악할 수 있다.
“꿀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꿀은 맛있다면 꿀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꿀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통해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도 ㉠은 제기할 수 있다.
- ⑤ 행크스에 의하면 P가 단독 사용이 되든지 조건문의 안에 포함되든지 결국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기때문에 ㉠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16. <보기>의 입장은 지문의 누구와 닮아있는가?

정답해설 ① 에이어에 의하면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를 나타내기에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 <보기>의 입장은 도덕 문장이 정서적 의미를 나타낼 경우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에이어와 <보기>는 상통한다.

— <보 기> —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 정서적 의미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 일관적이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지문독해 FRAME

주장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반복된 주장을 통해 빠르게 그어내자. 제대로 읽어냈다면 지문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선지선택 FRAME

방향성

지문과 <보기>의 주장의 방향성만 판단하면 된다. <보기>와 에이어는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

오답해설

- ②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에이어를 비판한 논리학자들이 한 말이다. 그들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③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도덕 문장이 참과 거짓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④ ‘꿀은 맛있다.’가 꿀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에 에이어도 동의한다.
- ⑤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에이어가 했다.

17. 단어 유형은 내가 아는 의미로 바꿔치기해본다..

정답해설 ② ‘제시하다’는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는 의미이다.

선지선택 FRAME

바꿔치기

문맥에 대입하자.

오답해설

- ① ‘수색하다’는 ‘구석구석 뒤지어 찾다.’의 의미이다.
- ③ ‘전파하다’는 ‘전하여 널리 퍼뜨리다.’의 의미이다.
- ④ ‘발산하다’는 ‘감정 따위가 밖으로 드러나 해소되거나 분위기 따위가 한껏 드러나다.’의 의미이다.
- ⑤ ‘공개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터놓다.’의 의미이다.